

도민·공무원이 만든 혁신 아이디어 선정

도민과 소통하는 '정책소풍' 개최

전북자치도, '2024년 도민·공무원 테마제안 공모' 개최... 창의적 정책 제안 10건 선정·다양한 제안 도정 반영 예정

전주 완산도서관서 '지역문화 거점으로서 도서관역할' 주제로 진행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과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한 '2024년 도민·공무원 테마제안 공모'에서 최종 10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정책 수립 과정에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1인가구 및 청년 지원', '특례 발굴', '전북의 기회'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4월 시작된 공모에는 총 121건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도민·공무원 테마제안 공모'에서 최종 10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해 시상했다.

접수된 제안은 실무 심사를 거쳐 18건의 우수 후보가 본심사에 올랐으며, 본심사에서는 제안자들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심사위원의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본심사에 앞서 전문가 멘토링과 온라인 정책 선호도 조사도 진행해 제안의 실효성과 도민 선호도를 심사 접수에 반영했다.

최종 심사는 실현 가능성, 창의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도민 제안 6건(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3건)과 공무원 제안 4건(대상 1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도민 부문 대상은 청년 창업 팝업스토어 운영 제안이 선정됐다.

청년 창업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시장 반응을 시험할 수 있도록 도정

에 팝업스토어 공간을 제공하는 아이디어는 창업 교육과 네트워킹 기회까지 포함해 창업을 위한 든든한 발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최우수상에는 '세대를 잇는 공동육아: 지역사회의 새로운 시작'과 '전북 신혼살림 프로젝트 시범추진'이 차지했다.

공동육아 제안은 은퇴자들이 보유한 경험과 지혜를 활용해 어린이들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대 간 자연스러운 교류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아이디어는 맞벌이 가정과 워킹맘을 위한 긴급 돌봄 서비스와 품앗

이 육아 프로그램을 포함해 지역사회 내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전북 신혼살림 프로젝트'는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아이디어다.

결혼 초기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무원 부문 대상은 '왔다(와따) 못난이'가 차지했다.

이 제안은 상용성이 낮아 저렴하게 판매되는 못난이 채소를 활용해 치매 마을 등 고령화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생필품과 식료품을 정기적으로 공급

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를 통해 고령자에게는 안전망 역할을 제공하고, 지역의 로컬푸드 활성화와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지원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줬다.

천영평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테마제안 공모는 도민이 직접 정책의 아이디어를 제안함으로써 도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며, "선정된 제안들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와 협력해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선 8기 정책 발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비전을 함께 설계하고 있다.

'정책소풍(Saw-風)'은 도내 각 시군 현장을 찾아가 직접 보고(Saw), 도민과 함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즐겁게(So Fun), 전북에 변화의 바람(風)을 불러일으킨다는 의미를 담아 전북자치도가 추진 중인 정책이다.

이번 정책소풍은 장수군, 김제시, 부안군, 무주군에 이어 다섯 번째로, 5일 전주 완산도서관에서 '지역문화 거점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주제로 진행됐다.

전주 완산도서관에서 열린 이날 정책소풍에는 김종훈 경제부지사, 김인태 전주 부시장, 진형석 도의원, 최용철 전주시의원을 비롯해 자작자책 공작소 입주작가, 도서관 여행해설사 등 전주시민 30여 명이 참석해

자유로운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전북 자치도와 전주시는 지난 7월 새롭게 단장한 전주 완산도서관의 자작자책 공작소, 문화공간을 둘러보고 도서관의 우수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아이디어 보물찾기' 세션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정책 의견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전주 국제 그래픽 도서전 개최 지원 △광역 대표 도서관 건립 △공립 작은 도서관 운영비 지원 △전주역 내 도서관 조성 등 도서관이 지역문화의 거점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활발히 논의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논의된 정책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다음 정책소풍은 오는 22일 완주에서 개최된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간척박물관, 20만 관람객 돌파

올 3월 관람객 10만 명 돌파 후 7개월 만에 성과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국립 새만금간척박물관(관장 김형술)이 개관한 지 1년 3개월 만에 지난 달 31일 기준으로 누적 관람객 2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립 새만금간척박물관에서는 부안군에서 주최하는 '제1회 군민과 함께하는 정책 로드' 행사가 열렸으며, 권익현 부안군수와 김형술 국립 새만금간척박물관장이 20만 번째 관람객을 함께 맞이하여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올해 3월에 관람객 10만 명을 돌파 후 7개월 만에 다시 10만 명이 추가 방문한 것은 국립 새만금간척박물관이 새만금 최초의 문화·교육 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중요한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국 어린이 글짓기 대회', '새만금 바다로! 하늘로!' 등 문화행사와 다양한 교육 및 체험행사를 운영하여 지역사회와 교육기관, 관광객들에게 귀중한 문화와 체험활동의 장을 마련하는 등 꾸준한 노력의 결과이다. 또한, 오는 12월에는 계화도 간척사를 주제로 한 기획전(가제: '땅·생·쌀: 계화도 간척사')을 준비 중으로, 관람객들은

삶의 터전을 일구는 간척의 역사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성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국립 새만금간척박물관이 10만 명을 돌파 후 7개월 만에 20만 명을 돌파한 것은 개관 이래 보여준 꾸준한 노력의 결실이다."라면서, "새만금개발청은 앞으로도 무궁한 가능성을 가진 새만금 문화·관광의 미래를 간척해 나가는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술 관장은 "행운의 20만 번째 관람객을 비롯해 박물관을 찾아주시는 많은 관람객에게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시를 통해 관람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간척의 역사를 널리 알리고, 문화와 교육의 허브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동물보호센터 전수 점검 실시

도내 24곳 보호센터, 법적 시설 기준·운영 실태 점검... 27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동물보호센터의 전반적인 관리와 보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6일부터 27일까지 일제 점검을 나선다.

이번 점검은 24개소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에 따른 시설 기준과 운영 실태를 철저히 검토하는 한편, 보호비용 청구의 적정성까지 폭넓게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 점검은 전북자치도와 시·군이 함께 진행하는 합동 점검으로,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시설 및 운영 기준 준수 여부 △보호동물 개체 관리와 질병 치료 상태 △유기동물 보호비용 청구의 투명성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점검 결과 미비 사항이 발견되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개선 계획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법적 기준 미준수나 보호비용

부정 청구, 동물 학대 등의 불법 사례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며, 보호센터 지정 취소까지도 검토하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도내 유기동물 발생 수는 6,570마리이며, 이중 1,912마리(29.1%)가 입양·기증됐다.

전북자치도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보호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40억 원을 투입해 입양비 지원, 구조·보호비 지원, 유기동물 구조 정비 지원, 민간 보호시설 환경 개선 등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전수 점검을 통해 도내 동물보호 여건이 한층 향상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유기동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도내 식품기업들, 우수 인프라 현장 견학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 국내 주요 연구기관 방문 예정

전북의 식품기업들이 최첨단 연구기관 투자를 통해 기술력을 높이고 혁신을 향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내 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5일부터 내년 3월까지 '식품기업 지원 우수 인프라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내 식품기업들이 최첨단 연구시설과 장비를 직접 체험하고,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할 수 있는 상생의 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참여 기업들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전북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 국내 주요 연구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가능성평가지원센터, 소스 산업화센터, 농생명·농업자원 분석센

터, GMP 설비 등 다양한 첨단 시설을 소개하고, 최신 산업 정보와 연구개발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투어에는 시군 출연 연구소와 협력 중인 도내 농식품기업 약 30여 개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내 식품기업들은 혁신적인 기술과 산업 동향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하 전북자치도 농식품산업과장은 "이번 현장 견학 프로그램이 지역 식품 연구기관과 기업 간 협업을 강화하고, 전북 식품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도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